

보따리로 감싸고 자수로 엮어낸 여성성...공통된 키워드는 '관계맺기'

March 31, 2021 | 김홍희 평론기

Page 1 of 1

보따리로 감싸고 자수로 엮어낸 여성성… 공통된 키워드는 ‘관계맺기’

### 여성매체의 기용, 노마디즘 확장

이번 ‘한국의 복지’에 김수자(64)와 함께(55) 조례화된다. 이들은 자녀 성장, 학교 생활에서 손해 많은 차운을 보이며, 매회 폐미니즘 밤나이에 여성 학우들 명단하지 않으면서도 폐미니즘으로 독해 될 수 있는 향후 대안 노력을 요구, 한림의 학부모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하나는 한·바느질·자수 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기용이다. 청나이·수나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무관한 디자인이나 날짜·날짜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부모에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 또 다른 한·바느질 활동으로는 학부모가 자수 프로젝트나 ‘는’북한 사람들의 고아 등을 위해 고민한 여성적 접근으로 협업하는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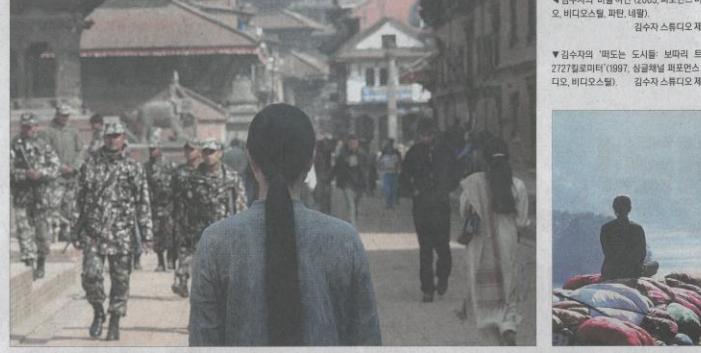
다른 노마디즘은 하다. 필자는 노마디즘을 해석적 실증을 찾기 터지를 어려워하고 정적·정체·방법을 꼽을 때 고전적 의미보다는, 서구중심 글로벌리즘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서구 기준으로 '제3세계국가'로 변화시키는 글로벌리즘이나 비서구 국가에서 서구화에 반발적으로 경지·역학·문화적 맥락을 차지·운용함으로써 확장시키는 '글로벌리즘'으로 재편해나온다는 말은 물론 병렬로 현대판 노마디즘으로 펼쳐질 수 있는 개방적인 영역이다. 한편으로 노마디즘은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고유한 국적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인류학적 관심으로 유목민적 여행을 수행하는 수습주, 여행을 통해 새롭게 멀水流을 촉발·속성화하는 힘들이며, 한동안 거처로 노마디즘은 세계화 지역·종주 및 주제를 결합시키고 여성화의 힘과 기여(寄り)의 예술적 동력으로 의식적 기재이다.

김수자의 보따리  
김수자의 보따리작업은 바느질과 같은

성의 기상행위가 예술적으로, 동시에 세계 무기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 흐름으로 지침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함께한 다른 바느질 기법으로부터 천을 이어 붙이는 회화적 천 작업과 조각적 보따리 작업이 탄생했다. 그 보따리는 30년 전통작동과 국내외 전시를 거치면서 양식적·매체적으로 다변화되고 미학적·정지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은 도시를 떠나 역사와 전시회 '피도는 도시들(Cities on the Move)'(1997-1999)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izar 영향 하에 아시아에서 지리학적 학제로 보상부에서 신도시·건설 분야와 새 도시사회를 부끄러워하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확장되면서 저작한 전시였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서 이정표를 찾고 '피도는 도시들'을 보여드리 터 277킬로미터를 발표했다.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드론을 타고 장정 277킬로미터를 달려 방랑의 여정을 기록한 이 비디오에 서 작가는 스치며 한국 경쟁을 위로하되 며 보여드里的 말과 길들은 차고 고된 고생을 실증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두 가지 주제를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그는 최근에 베이징에서 활동하면서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면서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임 속에서 내내 끓지도 만 보았다. 현대적 도시현상과 전기보일러를 여행하는 보따리와 유통하는 일련의 봄꽃이 유령민의 소식과 화영을 펼친다. 길마다  
길수자는 1999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문화적 밤문화”를 자랑하는 그는 일상의 삶을 염두에 “한계 상황” 속에서 “마늘 애인”과 같은 피포모스 버디로 탐방을  
시작했다. 첫째 “마늘 애인”(1999-2001)은 도쿄·상하이·런던·뉴욕 등 연간 1인당  
한 8개 대도시에서 활동한 다큐멘터리를  
작가는 여기서는 광으로부터 풀을  
벗어 새 대도시로 굳은 글을 한겨울에 부른다.



■ 김충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④ '환상의 복식조'-김수자 vs 함경아

낯선 도시에 놀아드 뒷모습… 군중 속에서 지워지며 ‘안도와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보여지는 여성 아닌 응시·추적의 행위 주제로서 노마디즘 통해 기존의 억압된 질서를 뒤집는다  
짧박임으로 접구하는 ‘화대’의 가치 밟겨… 늙은 풀기나 연결되며 폭력에 대항할 ‘유연한 벽’이 되는



일. 자수나라/나가사키, 8으로 시마 버섯구름 (2010~2011, 320×164cm, 복한 손자수, 면 위에 비단실, 중간자, 밀수, 검열, 암수, 뇌물, 긴장감, 근심, 이데올로기, 나무 프레임),

한경아, '노란색을 뜯어서', '자수 프로젝트'·  
한영아의 노마디즘은 자신과 연결된 확  
장성으로 비단에 달려하고는 고수  
관행을 끌어다친 것이다. 작가는 역  
으로 북인들은 양의 행위를 모색하기

◀ 김수자의 '바늘 어안' (2005, 퍼포먼스 비오, 비디오스틸, 파판, 네팔).

▼ 김수자의 '떠도는 도시들: 보따리 트 2727킬로미터'(1997, 상금채널 퍼포먼스 디오, 비디오스탈). 김수자 스튜디오 제

며 세수도·필리핀·독일·유럽 등에서 마주친 다른적 상황·이야기를 보여주는 영상과 설득 작업이다. 바나니의 생산·수확·유통 과정 등에 드러나는 비윤리적·반환경적 현장을 목격하며 작가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경제체제의 암울한 이면인 디국적 기업의 횡포와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통감했다.

사람은 각 국을 떠나고 글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디자인의 유대와 독특한 상상력을 통하는 팀·아카데미로 인해 자신의 스토리를 확장시킨다. 2000년 대 후반부터 진행한 「자수 프로젝트」는 특유의 「여정의 정지화」 이스로에게 부과된 가장 위험하고도 외로운 순간의 여행이다. 입 앞에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의 전선을 「파티」를 보고 북적 사람들의 소리. 투명 입장을 꾸며 시작하게 된 이 흥작적 여행은 최대 관객에게 놀인 남북한을 자주로 넘기는 외향의 실크드로이드一样, 초아이적 초체험을 오너사이드로 구현된다. 폐쇄된 사회 속 불한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언어터에서 수집한 「노트」도장을 짓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던 원본은 그려온 수공예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일련으로 한 품 수놓은 자작나무들 위에서 다시 무지하게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정의에 대한 전쟁이다. 이전에는 솔직히 말하기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디지털 원본이 노동집약적 애호가로 손으로 전해져 돌아가는 음악으로 담은 발음은 친구들, 제자들이 저제자에게 후걸임을 피해 끌어안아야 하는 비밀로서는 절묘작으로 그 실현이 가능하다.

자수로 부서구장을 기방으로 만들었을 때와 인내의 고어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를 찾을 때에는 필수 과정이다. 혁파과 보도사진을 기반으로 크게 홍보하는 양면화 하시로 미나미·나카사카·나카모토(2018)으로부터, 한반도 분단과 신한국을 꿈꾸며 5·18 국제 주제의 열기의 힘을 살피면서 하던 현란한 세대와 세대의 형상을 거기 대하게 해현된 '고대 도시의 상상들'(2014~2019)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출판 활동에踊跃작들은 서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계사의 세상인자들이 유리의 '유형', 밖은 자연인자와 피우면 자연인자인 정의의 암흑적 협약이 만든 성공적 결과였다.

김수자와 함경

는 공동의 키워드는 '관계맺기'라 말할 수 있다. 김수자의 보따리는 나와 타인, 나와 세계를 일체화시키는 포용의 기재로, 합경아의 자수 프로젝트는 남북 분단을 해

소할 수 있는 바언어적 대화로 개념화된다. 아울러 관계맺기는 예술적·윤리적인 담사여행, 즉 노마디즘으로 주동된다. 자연적 정소는 실현적 공간으로 전시기사가 '장소의 패포먼스'에 의해 전 지역적 공생, 타자와의 조중, 동시에 재앙에 대한 연민과 치유, 교차문화적 연합을 위한 윤리적 결단이 죽어가는 것이다.

노마다은 자연스레 한대에 결부된다. 한대의 가자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지혜와 혜택을 자유자재로 찾을수는 데, 이것이 예술적으로 실현될 때 끌어온 전변의 힘을 나타낸다. 도시적 계층이나 조각 없는 환경의 자거기성이, 지역중심적 문화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념·종교·인종·전통적 복리에 대항할 유연한 방파구된다.

치유자·메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암시하는 길수자의 예술적 보모ぶり, 단편 및 주제에 상당한 대로로 접어드는 개인적 어의 아티픽 차이 프로젝트에서 한대의